

보톡스주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창성질환에 관한 연구

프라나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안철민 · 장진은 · 황지영

유창성질환이란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언어 장애를 뜻한다. 흔히 말더듬(Stuttering)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Van Riper(1982)는 말의 흐름이 근육운동의 붕괴로 인해서 말소리, 음절 또는 낱말에서 방해를 받거나, 이러한 방해작용에 대하여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정의하였다. 주 증상으로는 말소리의 반복(repetition), 연장(prolongation), 막힘(block), 목조임이 있다. 이런 유창성 질환에 대한 치료로는 언어재활치료, 심리치료, 보톡스주사를 이용한 치료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치료 방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보톡스주사를 이용한 방법은 발표자에 따라 효과의 유무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유창성질환에서 나타나는 막힘과 반복 등은 후두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어 막힘이 나타나는 후두에서 보톡스의 사용은 어느정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보톡스 주

사가 유창성질환에서 어떤 경우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창성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한 환자 중 P-Fa 검사에서 진단이 가능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들은 성별, 나이에 따라 보톡스 주사의 효과 유무를 확인해 보았고, P-Fa 점수의 약함, 중간, 심함의 상태에 따라 보톡스 주사의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리고 후두에서의 발성 상태와 호흡상태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해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성문개방율을 비교하여 보톡스 주사의 효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성별, 나이, P-Fa 점수, 평균호기류율, 성문하압, 성문개방율에 대한 보톡스 주사의 효과 유무를 통계 처리하여 확인해 본 결과 평균호기류율에서 유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 : 창성질환 · 보톡스 · 평균호기류율.